

# “전북을 문화수도로”

###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문화정책 공약 발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국립전북문화재단연구소 설립 등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는 4일 “전북을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후보는 이날 “우리마을 알찬 문화, 누구나 어디서든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성공적인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국립전북문화재단연구소 설립 ▲전북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등 10개의 세부실천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는 지역과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 향유는 누구나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며 “전라북도는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의 문화적 수도로서 위상정립과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선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문화로 번영하고 경제로 성장시킬 것”

###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문화소비시장 확대 등 문화경제 3·3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가 문화번영과 경제성장을 두 축으로 전주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만들고, 대규모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다고 내용의 ‘문화경제 3·3 핵심 정책’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4일 전주시청 브리핑에서 “지금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

가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이끌어가는 리더도시가 됐다”면서 “앞으로 전주는 대한민국의 변화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지난 4년간 씨를 뿌리고 싹이 튼 많은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며 전주를 문화로 번영하고 경제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드는 ‘문화번영 3대 약속, 경제성장 3대 약속’을 제시했다.

문화번영 3대 약속은 △문화발전의 완성·덕진 두 축 완성 △문화를 앞선 문화도시 실현 △문화소비시장 확대 및 스포츠 메카도시 조성 등이며, 경제성장 3대 약속의 경우 △탄소산단 완공 및 중소기업 육성 △창년들의 희망 찾기 △민생을 살리고 따뜻한 경제 키우기 등이다.

김 후보는 “문화가 밥이 되는 문화관광경제, 기업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기업경제,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금융경제와 농생명산업경제 등 전주의 문화번영과 경제성장을 위해 갈아 갈 것”이라며 “힘 있는 재선시장 이 시민들의 응원과 열정을 모아 반드시 전주의 희망의 꽃을 피우겠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 ‘전북·전주시 대중교통 전면 개선’

### 임정엽 도지사 후보 - 이현웅 전주시장 후보

6·13 지방선거 민주당계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와 이현웅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전주시 대중교통의 전면 개선카드”를 들고 나섰다.



임정엽 후보



이현웅 후보

임 후보와 이 후보는 4일 전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과 이동편의 요구를 무시한 채 막대한 세금만 낭비하며 부실한 키우고 있다”며 “전주시 시내버스는 2010년 12월 이후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271일 간의 파업을 겪는 등 불편과 교통이 진행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파업이후, 전주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며 “오래전 전주시는 한해 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뒤떨어진 서비스는 방치한 채 업체 이익만 옹호하는 식의 태도로 마치 버스 회사를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북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 환승 시스템 역시, 30년 전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도저히 2018년의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며 전북 광역교통체계의 문제

점도 제기했다. 최근 버스 카드 하나만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대임에도 전북은 아직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그때그때 표를 끊어 옮겨 타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광역교통 체계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두 후보는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4년 동안 부실경영엔 돈벼락을 이용자에겐 절망만 안겨주며 대중교통을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며 “대중교통 재배구조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우선 전북 대중교통계 선단을 만들어 대중교통 공영제와 노동자 자주기업 등을 포함한 ‘버스 지배구조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주의 경영 포기가 지원금 인상의 도구가 될 수 없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나도 이젠 정규직” 무주군은 4일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 도, 축제 행사 안전관리 강화

전북도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가 보다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축제 행사 개최 전 시설물이 설치되면, 전북도와 시군, 전기, 가스, 소방, 교통, 시설 등 전문가와 함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계자와 함께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 해왔다.

전북도에서 현장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축제 행사가 달라도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사례를 매뉴얼화 할 계획이며, 이 매뉴얼로 행사 주관부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홍보하여 시설물 설치 전부터 행사장 안전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4~5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축제장 10곳을 방문하여 분야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시설 안전) 가설무대 연결부위 및 바닥 고정 보강, 강풍대비 전도방지 고정화 이어 추가설치 ▲(소방안전) 식당 부스 및 무대주변 소화기 추가 비치, 급급상환시 통행로 확보 ▲(가스안전) 가스용기 전도방지 및 설치 후 가스누출 재확인, 가스배관 사용 권고 ▲(전기안전) 전선 보호덮개 설치, 콘센트 접지시설 및 규격전선 사용 ▲(기타) 안전요원 추가배치, 무대부와 관객석사이 일정거리 확보 등이다.

/김진성 기자

# “자동차·건설기계산업 육성에 최선”

###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 자동차융합기술원·건설기계부품연구원 방문

전북도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방문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방문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4일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전북도의 자동차산업 및 건설기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방문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9년 설립 이후, 지역 자동차 및 뿌리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기반구축 사업인 친환경도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소음과 진동, 배기가스, 살수시험 등 선진국 수준의 완성차 시험설비와 기업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건설기계분야 기술개발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했다.

### 무주군수 선거 후보자토론회

무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55분까지 무주군수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무주군수선거 후보자토론회에는 백경태(더불어민주당), 황인홍(무소속) 총 2명의 후보자가 참석한다. 무주군수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조법종(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주제는 여론조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동네 공약지도’를 통해 수집한 의견 등 무주군토론회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모바일과 인터넷(tv.debate.go.kr,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회’)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 6·13 지방선거

### 기초단체장 후보자 동향

###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6대 미래비전 발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학수 후보(무소속)가 4일, 정읍의 미래비전인 담긴 정책공약과 관련해 정읍시장 기자회견을 찾아 브리핑을 가졌다.



정읍선거 사상 최초로 예비후보 정책공약집을 발간해 화제를 모았던 이 후보는 “시민 모두가 잘 사는 정읍, 시민 모두가 시장인 정읍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정읍’, ‘농민이 밝게 웃는 정읍’, ‘전북 관광1번지 정읍’, ‘따뜻한 복지, 행복한 정읍’,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정읍’, ‘시민과 소통하는 정읍’이라는 6대 미래비전을 통해 6개 분야 30개의 공약 사업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책임질 농생명·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지원 프로젝트 ‘백년가업’, 식물자원소재연구센터 유치, 일자리본부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후보들은 4일 진안장날을 맞아 터미널 앞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후보, 이항로 군수후보를 비롯한 이항로 군수의원 후보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항로 후보는 또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고 깨끗한 진안을 지키기 위한 주민참여의 성과로 창조경제대상 수상, 2017년 외부청렴도 전북 군 단위 1위까지 했다면서 진안



군정이야말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이산의 4년간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교류인구를 늘리고 정주인구 늘려 지방소멸위기에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미래 진안의 희망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무소속 김종규 후보가 4일 유세에 나섰다.



이날 김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선 인기가수 송대관 씨는 “대들보 하나를 쓰더라도 짊어지는 목재를 쓰는 것이라며 수년간 내가 지켜본 김종규 후보는 천성 군수 짊어지기”며 “김도 안되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표가 된다며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김 후보는 이어서 논밭에서 만난 어르신들께서 “일하려면 민주당에 가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며 “군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당 당대표도 “산전수전 다 경험한 경륜 있는 베테랑 향해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조보운전자에게 부안을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